

**“이는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  
두 개의 전쟁...세계군비지출, 9년 연속 증가해 역대 최고**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이 9년 연속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 싱크탱크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지난해 전 세계 군비 지출은 2조 4천430억 달러(약 3천375조 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된다며 21일(현지시간) 이같이 밝혔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6.8%로 2009년 이후 가장 가파르게 늘어났다.

세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군비 지출 비중은 2.3%에 달했고, 세계 1인당 군비 지출액은 306달러(약 42만 원)로 199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이로 인한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이 관련국들의 군비 지출 확대에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난 티안 국제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009년 이후 5개(미주, 아시아태평양,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 모두에서 군비 지출이 증가했다”고 AFP 통신에 말했다. 그는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가 악화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며 “상황이 나아진 곳은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군비 지출 상위 5개국은 미국(9천160억 달러·약 1천265조 원), 중국(2천960억 달러·약 409조 원), 러시아(1천90억 달러·약 150조 원), 인도(836억 달러·약 115조 원), 사우디아라비아(758억 달러·약 104조 원)다. 이 중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전년보다 군비 지출이 24%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합병한 이후에 군비 지출을 총 57% 확대했다. 우크라이나의 지난해 군비 지출은 51% 급증한 648억 달러(약 89조 원)였다. 이에 따라 군비 지출 순위도 세계 11위에서 8위로 올라섰지만, 지출액의 절반 이상은 다른 나라의 군사 원조를 받은 것으로, 미국의 원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GDP 대비 군비 지출 비중은 우크라이나의 경우 37%에 달했지만, 러시아는 5.9%에 그쳐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미국은 군비 지출을 2.3%, 중국은 6%, 인도는 4.2%, 사우디아라비아는 4.3% 늘렸다.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받은 뒤 가자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한 이스라엘의 군비 지출 규모는 전년보다 24% 늘어난 275억 달러(약 38조 원)로 집계됐다.

티안 선임연구원은 현재의 중동 정세,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종전될지 불투명한 상황 등에 비춰볼 때 각국이 군비 지출을 확대하는 추세가 앞으로도 최소 몇 년간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출처: 연합뉴스 종합).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 1:18-19)**

하나님, 전 세계가 평화와 안보의 위협으로 인해 국비로 자신의 군사력을 강화하며 보호하는 움직임의 근거가 그들 안에 있는 깊은 두려움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세상의 권력과 힘을 의지하다 멸망한 역사를 교훈 삼아 그릇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세계가 이 땅의 참 주인이신 주님을 아는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이를 위해 열방의 교회들이 주의 깃발을 높이 들게 하셔서 참 구원자이시며 놋성벽으로 주의 백성을 지키시는 안전한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복음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 ▲ 캐나다, 끔찍한 옥창 겪은 환자의 조력자살 의료진 수용...의사조력자살 급증

2034년까지 캐나다에서 의사조력자살(MAID)에 의한 사망이 전체 사망의 10%를 차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의 칼럼 작가 앤드루 쿠만은 캐나다에서 의사에 의한 조력자살 절치는 점점 더 접근하기 쉬워지고 있으며, 한 연구 결과를 인용해 의사 조력자살이 10년 내 전체 사망 중 10%를 차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쿠만은 안락사를 '보건 의료'로 혼합하는 자유당 정부의 정책과 더불어 조력자살을 살인이 아니라 의학으로 분류하도록 형법이 개정된 후 조력자살 사망자가 4만 4,598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는 퀘벡의 한 남성은 병원에 적절한 의료용 매트리스가 없어 끔찍한 옥창을 겪은 후 의료진에게 조력자살을 신청했고 의료진은 그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또 매트리스를 구하는 것보다 약물 주입이 더 쉬워지고 있으며 부실한 의료 체계가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간다고 경고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호세아 6:1)**

하나님, 의료용 매트리스를 구하는 것보다 죽음을 선택하는 일이 더 쉬워진 캐나다에 진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는지 보게 되며 간절히 주의 다스리심을 구합니다. 생명을 보호하고 살려야 할 법을 바꿔 조력자살을 살인이 아닌 의학으로 분류해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위정자들을 꾸짖어 주시고 의료 체계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경외함을 잃어버린 어두운 이 땅이 여호와께 돌아가자 부르짖는 교회의 외침을 통해 주를 알게 하시고, 인애로 기다리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 ▲ 러시아, 거리 인터뷰한 시민 '가짜뉴스 유포 혐의'로 처벌

러시아의 한 시민이 거리 인터뷰에 응했다가 군대 관련 가짜뉴스 유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5년의 교정 노동형을 선고 받았다고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를 인용, 연합뉴스가 23일 전했다. 이 같은 판결을 한 모스크바 오스틴킨스키 지방법원은 모스크바 시민 유리 코호브츠(38)에게 4년간 웹사이트 관리 금지 처분도 내렸다. 2022년 7월 모스크바 거리에서 미국 의회 자금을 받는 자유유럽방송 자유라디오(RFE:RL)는 '러시아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가들이 긴장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지' 코호브츠에게 물었고, 그는 민간인 학살 논란이 있었던 우크라이나 부차 사건을 언급하며 "이 모든 것을 멈춰야 한다. 이 일이 끝나면 우리 경제는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작년 3월 그는 정치적·이념적 적개심 등을 이유로 러시아군 허위 정보 유포 혐의로 기소됐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 받는 자를 도와 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이사야 1:16-17)**

하나님, 서로 죽이며 피 흘리는 전쟁을 누구도 기뻐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통해 채워질 자신의 탐심만을 생각하는 러시아 정권이 악한 행실을 버리게 하옵소서. 나라에 대한 어떤 반대 의견도 용납하지 않는 이 땅에 십자가의 복음으로 은혜를 베푸사 말씀 안에서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는 거룩한 나라로 회복하소서. 오랜 시간 계속되어 온 명분 없는 전쟁을 속히 끝내주시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영혼들이 그리스도를 만나 진리 안에 참된 소망을 발견하여 성령을 따라 행하는 하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  
**스코틀랜드 교회 지도자들, 조력자살 반대입장 표명**



스코틀랜드에서 조력자살을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교회 지도자들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15일 전했다.

스코틀랜드 연합자유교회 총회장인 앤드류 다우니(Andrew Downie) 목사와 스코틀랜드 자유교회 총회장인 밥 애크로이드(Bob Akroyd) 목사는 조력자살 합법화를 위한 리암 맥아더(Liam McArthur) 의원의 법안을 지지하지 말 것을 스코틀랜드 의회 의원들(MSP)에게 촉구했다.

이들은 129명의 모든 스코틀랜드 의회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해당 제안 법안을 지지하는 것은 “선명한 도덕적 선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이는 “스코틀랜드 사회가 모든 인간 생명의 고유한 가치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스코틀랜드가 “윤리적 황무지가 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며 조력자살을 합법화하면 일부 사람들은 “삶의 가치가 없어졌다”는 메시지로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회 지도자들은 “창세기에 나와 있듯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생명은 동등한 가치를 지니며,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으로만 측정할 수 있는 가치”라고 말했다. 따라서 의회가 ‘특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생명은 가치를 잃고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도덕적 경계선을 넘으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럴 경우 “모든 인간 생명의 가치가 실제로는 불평등하고 순전히 상대적인 사회가 될 것”이라며 “모든 인간 생명의 가치가 그 유용성, 의미, 경험하는 즐거움의 정도에 따라 등급이 매겨지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서한은 끝으로 “스코틀랜드 전역에 적절한 완화 치료와 호스피스 치료가 발전되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삶을 끝내지 않고 최대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러면 사회는 이러한 사람들을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하게 되고, 동시에 연민과 보살핌을 받는 환자들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전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시편 36:1,9-10)**

하나님, 십자가의 피로 사신 존귀한 생명을 스스로 주인 되어 죽음을 결정하도록 법제화하려는 스코틀랜드에 이를 반대하는 교회 지도자들을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생명을 동일한 가치로 보지 않는 세상 풍조에 휩쓸린 위정자들이 우려가 담긴 나라를 위한 조연에 귀 기울여 마음을 돌이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음을 인정하게 하소서. 교회가 먼저 매 순간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깨어 복음을 전하여 주의 빛 안에 거하는 정직한 영혼이 세워져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2]

### ▲ 아프간 탈레반, TV 채널 2개 폐지...이슬람 가치 반해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하는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탈레반이 이슬람과 국가 가치에 반한다며 2개의 텔레비전 방송 채널을 폐지했다고 18일 AFP 통신을 인용, 연합뉴스가 전했다. 아프간 정보문화부 대변인 쿠바이브 구프란은 TV 채널 '바리아'와 '누르'가 저널리즘 원칙을 지키지 않았으며 해당 방송을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탈레반 당국은 방송에서 음악을 들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여성 TV 진행자에게 부르카 등으로 얼굴을 가리도록 하고 있다. 반탈레반 성향인 아프간언론인센터(AFIC)는 두 채널의 정지에 대해 "국가 언론법을 침해하고 언론 자유를 억압하려는 노골적인 시도"라고 비판했다. 탈레반은 아프간 재집권 이후 많은 언론사가 문을 닫았고, 취재하던 언론인이 대거 구금되는 등 강력한 언론 탄압을 이어가고 있다.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규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마지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이사야 14:5-7)**

하나님,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고, 자신들의 포악한 실체를 숨기기 위해 이슬람 율법에 따른 통치를 명분으로 언론을 탄압하고 있는 탈레반의 규를 꺾어주십시오. 이뿐 아니라 여성과 아동의 심각한 인권 유린과 기근으로 고통의 신음이 끊이지 않는 이 땅을 불쌍히 여기사 대적들로부터 영혼들을 지켜주시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슬람 외에 다른 종교를 허용하지 않는 이곳에 있는 소수의 성도에게 내주의 평안으로 함께하시고 이들의 순전한 믿음이 위로와 힘이 되어 복음의 행진이 계속되게 하소서.

### ▲ 칠레, 시골서 대형 대마 농장 적발

남미 칠레의 한 시골 마을에서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대규모 실내 대마 재배 시설이 경찰에 적발됐다고 19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칠레 리베르타도르 헤네랄 베르나르도 오이긴스 주(州) 경찰청은 수도 산티아고 키타데틸코코와 마요아 마을 내 2곳의 창고 시설에 첨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 대마(마약 마리화나 원료) 5,000주 이상을 기른 혐의로 중국인 2명을 붙잡았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우리 지역에서 적발된 것 중 최대 규모"라며, 시가 48억 페소(70억 원 상당)에 해당하는 마약류를 만들 수 있는 양이라고 설명했다. 창고 내부를 밝히는 불그스레한 특별 조명과 곳곳의 환기 시스템 등은 적잖은 자금이 투입됐음을 암시한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또 체포된 중국인들의 입국 경로가 불분명한 것을 확인하고 불법체류 여부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시편 90:8-9,12)**

하나님, 칠레에서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대규모 대마 시설이 적발된 일을 통해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서라도 불법을 행하는 인간의 죄 된 실상을 보게 되며 주의 자비하심을 구합니다. 우리의 은밀한 죄까지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 없음을 인정하며 모든 이가 주의 얼굴빛을 구하며 그 앞에 자복하는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구합니다. 불의한 부를 축적하려는 어두움의 세력들에게 이생의 삶이 얼마나 짧은지 깨닫게 하셔서 교회를 통해 전파되는 십자가 복음이 들려져 주님의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올레를 빙자하는 자들이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으라”  
국민의 반대에도 성전환 문턱 더 낮추는 법안 표결



1972년 세계 최초로 성전환을 합법화한 스웨덴이 행정적·물리적으로 성전환을 더 쉽게 만들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AFP통신에 따르면 스웨덴은 법적 성별 변경 가능 나이를 낮추고 성전환 수술 승인 절차를 없애는 법안을 17일(현지시간) 표결에 부친다.

법안에는 법적으로 성별을 바꿀 수 있는 나이를 현행 18세에서 16세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부모와 의사, 국가보건복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법적 성별을 전환할 때 생물학적 성별과 자신이 인식하는 성별 간 괴리를 검사하는 ‘성별 위화감 진단’을 진행해야 했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이 또한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다. 또 법안이 채택되면 성전환 수술의 경우 현재와 마찬가지로 18세부터 허용되지만 더 이상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국민 여론은 냉랭한 분위기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스웨덴 국민의 거의 60%는 이 법안에 반대했으며, 찬성은 22%에 그쳤다. 반대 측은 여성 탈의실과 교도소에 있는 생물학적 남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고,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청소년들이 성전환 수술을 쉽게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안이 채택될 경우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출처: 뉴스1 종합).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올레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이까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시편 94:12,20,22)**

하나님, 영혼과 몸을 파멸로 이끄는 법안을 표결하여 올레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스웨덴 정부의 어리석음을 꾸짖어 주시고,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막아 주십시오. 이때 스웨덴의 교회가 복음의 진리를 더욱 외치고, 기도로 싸우게 하셔서 악의 길로 치우치는 스웨덴이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복된 자리로 돌이키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던 이 땅의 영혼들이 그들의 요새요 피할 반석이 되시는 구원의 주를 만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 ▲ 국제기독교연대, 인도네시아 군도 서파푸아의 기독교인 보호 위한 개혁 촉구

박해감시단체인 국제기독교연대(CSI)가 유엔인권이사회(UNHRC)에 인도네시아에서 원주민이 대부분 기독교인인 군도 서파푸아의 교인을 보호하기 위한 즉각적인 개혁을 시행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전했다. CSI 조엘 벨드캠프(Joel Veldkamp)는 최근 성명을 통해 “서파푸아인들이 의료 및 교육에 대한 제한된 접근, 자원 추출 프로젝트를 위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토지 할당, 지역 내 지속적인 군사 작전, 서부 파푸아 원주민에 대한 경찰의 폭력, 지방 정부의 정치적 대표성 부족 등 중요한 영역에서 인종차별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CSI는 “지난 2월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수하르토 전 대통령의 사위인 프라보워 수비안토가 집권하면서 긴장이 고조됐다. 1990년대 특히 서파푸아에서 발생한 잔학행위에 프라보워 대통령이 연루되면서 원주민들 사이에 두려움이 고조됐다. 많은 사람은 그의 대통령직이 서파푸아인에 대한 탄압과 폭력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여 그의 눈이 인생을 통솔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시편 11:4-5)**

하나님, 오랜 시간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정치적, 행정적 차별과 폭력으로 고통받아 온 서파푸아의 원주민을 보호해 주시고 사태를 멈춰주시길 간구합니다. 프라보워 당선자가 지난날의 과오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뉘우침으로 새 정부를 시작하게 하시고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미워하시는 주님 앞에 위정자들이 두려움으로 서게 하소서. 모든 인생을 감찰하시고 믿는 자에게 가장 선한 것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주를 향한 기쁨을 잃지 않도록 서파푸아에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 ▲ 호주 내 유학생들, 임대료·생활비 부담으로 성 착취·강제노동 내몰려

호주의 높은 주택 임대료와 생활비 부담이 호주 내 유학생들을 성 착취와 강제 노동으로 내몰고 있다고 25일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아를 인용, 연합뉴스가 전했다. 호주 연방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회계연도(2022년 7월-2023년 6월)에 340건의 인신매매 사건을 조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증가한 규모다. 이 중 강제 결혼 관련 신고가 90건이었고, 성 착취 신고가 73건, 강제 노동 관련 신고가 57건이었다. 이에 대해 뉴사우스웨일스주 반노예 위원회의 제임스 코케인 위원장은 이 사건 피해자의 상당수가 유학생들이라며 이들이 언어 장벽과 빈곤, 가족 지원 부족, 법적 권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착취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코케인 위원장은 유학생들이 ‘위험한 노동과 착취’에 내몰리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임대 주택 부족과 높은 생활비 때문이라며 “주거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갈라디아서 5:14-16)**

하나님, 유학생이라는 어렵고 불리한 상황에 처한 이들을 이용해 착취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호주를 책망하시고 이들이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상황에 타협하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자신의 꿈을 위해 이 땅을 찾아온 유학생들이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복음 안에서 찾게 하셔서 주님이 그토록 갈망하신 선교 완성의 꿈이 이들을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소서. 이웃 사랑을 명하신 주의 말씀에 호주 교회가 순종하여 영혼을 위한 복음의 씨를 뿌리고 부지런히 기도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으로 세우소서.